

고수온 재난 예·경보 전면 해제

- 전남 10개 해역 고수온 특보 해제에 따라 재난 예·경보 전면 해제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9월 30일(수) 16시부터 고수온 재난 예·경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. 이는 고수온 주의보가 유지되었던 전남 서해·남해 앞바다 등 10개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른 것이다.

고수온 재난 예·경보*는 7월 14일(화) ‘주의’ 단계가 발효된 후 7월 30일(목) ‘심각’ 단계까지 발령되었으며, 9월 30일(수)까지 78일간 지속되었다. 고수온 특보**가 발효된 일부 해역의 경우 작년 대비 수온이 최대 7~8℃ 높았다.

* 관심 → 주의(예비특보 발표) → 경계(주의보 4개 이상) → 심각(주의보 15개 이상)

** 예비특보(수온 25℃ 도달) → 주의보(수온 28℃ 도달) → 경보(수온 28℃ 3일 이상 지속)

해양수산부는 높아진 수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 예산 총 9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. 또한,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수산물을 조기 출하하였으며, 어류 1,930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는 등 해수부와 지방정부, 어업인들이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였다.

해양수산부는 이번 고수온 재난 피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에 따라 어업인 피해 복구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 특히, 추석 전 1차 재난 지원금으로 96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10월 안에 ‘2차 복구 계획’을 마련하여 추가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작년보다 높은 수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.”라며, “피해 조사와 재난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, 올해 피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도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환 (051-773-5392)
			사무관	김범규 (051-773-5626)